

# 담양군, 달빛내륙철도 환영 “77년 숙원 풀었다”

## 지역균형발전 획기적 계기 마련... “조기 착수 위해 적극 대응”

담양군이 77년 동안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이 해결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담양군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최종 확정되는데 대해 입장을 내고 “달빛내륙철도의 신설은 담양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앞으로 있을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유 구간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철도는 1922년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km의 전남선 구간을 개통해 1일 6회 왕복 운영되다가 1944년 폐선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24년의 경우 광주-담양 간 연간 이용객은 30만명에 이르렀고 농산물과 축세공예가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1935년에는 남원-순창-담양을 연결하기 위해 35.4km 철도 건설공사도 착수한다. 1942년 급지역(남원)-담양 간 노반공사를 완공하지만 이후 예산삭감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중이던 일제는 1944년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공공사업 중단과 함께 광주-담양간 철도는 23년만에 영업이 중지되고 폐선돼 선로는 공출된다.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에는 당시 건설하다 중단된 철도 교량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담양군 봉산면 송강정 일대를 일컫는 ‘쌍교’라는 지명 역시 일반 차량이 다니는 교량과 열차가 다니는 철교가 나란히 건설되면서 쌍교라는 이름을 얻었다.

1965년에 이어 1970년대에도 광주와 대구를 철

도로 연결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광주-대구 간 광역철도가 명분있는 대체제로 건의됐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에 이를 반영하면서 용역이 진행됐고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담양군과 군의회는 지난 5월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다 이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장 공동명의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목포-광주-담양-대구가 연결돼 산업과 물류 등 문화관광 교류가 활발해지고 향후 경제협력 확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안심귀가 '태양광 반딧불이' 함께 합니다. 장흥군은 최근 여성이 살기 좋은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태양광 안심등 반딧불이를 범죄 발생 취약지역 버스승강장 50개소에 설치했다. 태양광 안심등 반딧불이는 낮 동안 에너지를 충전시켜 야간이 되면 자동으로 빛을 밝히는 구조로 노약자, 학생, 여성 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적극 행정’ 장성군, 계약심사로 혈세 8억 아꼐다

장성군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차단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10억원에 가까운 군민 혈세를 절감했다.

장성군은 사업 발주 전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미리 분석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상반기에만 총 8억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 시 시행한다.

장성군은 올해 심사에서 매년 개정되는 품셈 등 관련 자료와 사업의 목적, 규모,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의 적합성 등을 집중 심사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상반기 내 167건을 심사해 공사(87건) 7억5200만원, 용역(52건) 7300만원,

물품 관련 예산 100만원(28건)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억8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 푼의 혈세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쌀귀리 첨단처리시설 가동

정선부터 저장까지 가능

쌀귀리 1번지인 강진군이 쌀귀리 품질향상과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쌀귀리 정선·건조·저장 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강진군과 도암농협 협력사업으로 건립한 쌀귀리 정선·건조·저장시설은 총 사업비 약 4억원을 투입해 수확 후 정선부터 저장까지 가능한 첨단시설이다.

쌀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심혈관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며 소비자로부터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쌀귀리와 관련 농촌진흥청 원종과 원원종 채종단지가 있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쌀귀리 주산지다 손잡하며, 전국 최대 면적 609ha에서 재배 중이다.

또 강진군은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바쁜 일상에도 건강하고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강진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웰빙 가공식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현재까지 강진 쌀귀리떡, 쌀귀리 선식, 쌀귀리 고추장 등 총 11개 업체에서 17개 가공식품을 만들어 흡소평, 미국 대형마트 ‘남대문마켓’에 진출하는 등 6월 말 기준으로 7억61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군은 지속적인 재배사업 및 연구개발을 통해 강진 쌀귀리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쌀귀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쌀귀리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관내 시설이 부족해 재배농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쌀귀리를 보낸

뒤 가공된 상품을 다시 납품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쌀귀리 정선·건조·저장시설 기반을 갖춘 것을 기점으로, 향후 가공시설까지 완비해 농업인의 편의는 물론 부가가치 증대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과 도암농협 협력사업으로 건립한 쌀귀리 정선·건조·저장시설이 가동을 시작했다. 이승욱(왼쪽 네번째) 강진군수와 관계자들이 시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화순군,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탄력’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화순군의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법안에는 백신지원센터 설립과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백신지원센터는 국비 213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총사업비 283억원이 투입돼 백신 연구개발에서 컨설팅, 임상, 허가과 승인까지 백신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국가 백신전략의 핵심 인프라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장비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운영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

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백신지원센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백신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인 화순군 백신산업특구에 2022년 9월까지 완공돼 2023년 4월부터 백신 제품화 임상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백신 자급률 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위기상황 신속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함평군 제1·2금고 농협·광주은행이 맡는다

함평군 제1·2금고를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다시 맡게 됐다.

함평군은 최근 군은 금고 지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 제2금고에 광주은행 함평지점을 자기 함평군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기존에도 농협과 광주은행이 1·2금고를 맡아왔다.

세무·회계·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심의·평가했다.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는 함평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맡고, 광주은행 함평지점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투자유치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선정된 은행은 7월 중 함평군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 4년 간 금고 업무를 맡는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p>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p> <p>상무동지점 062)372-3741~2</p> <p>용산지점 062)526-0222~3</p> <p>지평지점 062)381-8212~3</p>	<p>쌍촌지점 062)381-6551~2</p> <p>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p> <p>화정지점 062)372-0421~3</p> <p>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p>	<p>유동지점 062)512-1984~5</p> <p>농성지점 062)361-4472~4</p> <p>동림지점 062)513-8521~3</p> <p>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p>	<p>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p> <p>운암지점 062)527-3295~6</p> <p>유덕지점 062)373-3235~6</p> <p>아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p>	<p>동운지점 062)528-2640~2</p> <p>비틀지점 062)381-1971~2</p> <p>운천지점 062)371-2772~3</p>
--	--	--	---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